

## VIII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소개

이관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영남대학교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regional center for respiratory diseases since 2008 with the objectives for controlling the regional respiratory diseases. Now 5 university hospitals are operating regional center for respiratory diseases in Korea. Each center is carrying the best care of patients, research, education and preventive medical services.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enter for respiratory diseases, it is necessary for the each center to cooperate with their hospital, reg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We expect our efforts will successfully manage the regional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s.

Key Words: Respiratory disease, Regional center, Government

Corresponding author: Kwan Ho Lee, M.D., Ph.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170 Hyunchoong-ro, Daemyung-dong, Nam-gu, Daegu 42415, Korea

Tel: +82-53-640-6601, Fax: +82-53-623-8201, E-mail: ghlee@med.yu.ac.kr

### 1. 서론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는 권역별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 연구, 교육,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이다<sup>1</sup>. 이 사업을 호남권에서는 전북대병원, 충청권에서는 충북대병원, 대구-경북권에서는 영남대병원, 부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병원, 그리고 강원-제주권에서는 강원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다. 사업관리와 평가는 행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에서, 구체적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질환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과 공공보건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질환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과의 공유가 필요하기에 센터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본론

#### 1) 배경 및 필요성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역간 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소재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심화되며, 지방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를 통하여 지방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며, 지방 환자의 서울 쏠림현상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sup>1</sup>.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의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검토하여 앞으로 어떤 질환이 이에 합당한지를 조사한 결과 호흡기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두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 2) 추진목적

설립 목적은 지방 대학병원의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체계적 진료, 연구, 교육과 공공보건의료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방 대학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sup>1</sup>.

## 3) 추진내용

호흡기 질환에 대한 환자 중심 통합전문진료를 제공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의학연구를 선도하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함에 있다.

## 4) 선정 경과

2005년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 균형발전정책으로 ‘보건의료분야 균형발전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2008년에 처음으로 전북대병원이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2009년에 충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이, 2010년에는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5) 사업내용

총 사업비는 독립된 건물을 신축한 4개 센터는 250억 원이 지원되었고, 증축한 센터에는 150억 원이 지원되었다. 국고 예산은 단지 시설과 장비 부분의 투자에만 제한되어 있다. 이 예산 외에도 사업운영비 등은 각 병원에서 대응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였다.

조직과 사업추진은 통합진료센터와 예방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주요 사항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호흡기 관련 전문가들로 ‘호흡기질환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

본 센터의 사업 총괄 지원 부서인 ‘교육운영지원팀’에는 팀장 포함, 5명의 교육전문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센터의 필수 참여과는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예방의학과로 정해져 있다. 본 센터는 이외에도 독립된 센터 건물에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1) 진료

기존 병원 건물과는 독립된 건물을 건립하여 환자들의 쾌적한 진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의료장비 구입은 각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진단에 필요한 최대한의 최신 장비를 도입하였다.

진료는 필요한 질환에 대한 다학제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학제진료가 이루어지는 질환은 많지는 않으며, 앞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관련과의 다학제진료가 요구된다.

외래진료에는 교육전문간호사와 코디네이트 간호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교육전문간호사는 질환교육과 흡입제 교육을 1:1로 실시하여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다. 입원 과정은 원 스톱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디네이트 간호사는 입원환자의 검사 예약 및 입원 수속 편의를 도와주고 있다. 금연 담당 교육전문간호사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상담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외래 공간에서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진료와 호흡재활클리닉이 동시에 진료하며 협진을 하고 있다. 또한 외래 진료실 옆에는 만성기도관리실, 다학제진료실, 호흡재활 치료실, 금연 클리닉, 결핵 클리닉과 임상연구실을 두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호흡기 체험관을 두어 환자, 보호자, 일반인들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자가 평가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자조모임도 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환자들의 수기 발표회도 개최하여 질환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 (2) 연구

센터 연구 사업은 임상환자에 대한 연구와 질환 예방 차원으로 환자 등록 시스템을 통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sup>1</sup>.

연구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각 센터마다 차이는 있으나, 본 센터에서는 기초-임상 연구실을 별도로 확보하여 호흡기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실의 여유 공간은 타 과에도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연구실은 병원에서 계획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3) 교육**

센터에서는 환자, 보호자, 권역 내 의료인(전공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폐암, 금연, 천식에 대한 질환교육 및 올바른 흡입제 사용법에 관한 건강강좌를 호흡기 센터 외래 옆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역 임상병리사 및 임상병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에 대한 강좌와 실습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중-고등학교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호흡기 질환 교육 및 흡입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는 매달 다양한 호흡기 관련 질환과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내-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고 있다.

**(4) 공공보건의료**

각 센터의 예방관리센터에서는 공공보건疫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예방의학과 교수 2명과 연구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보건疫료 사업은 주로 지역의 호흡기 관련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와 코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대구지역 안심 연료단지(석탄 저장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 환자를 진단하여 진료하고 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산시를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에 대한 코호트 사업도 계획 중이다.

대구시와는 ‘소집단 결핵 관리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지역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협의체 활동**

5개 센터가 결정된 후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그동안의 협의체 활동은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2016년에는 부산대병원 호흡기 센터와 영남대병원 호흡기 센터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5개 지역 센터가 영남대병원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업을 공유하였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7)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선정과 사업의 연속성**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였다. 센터별 선정 시기가 다르며 또한 개원 시기도 차이가 있어서, 2015년에 시설과 장비 사업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5개 센터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한 것은 2015년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시간적으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다 볼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2016년 2월 1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공공보건疫료에 관한 법률’로 제정-발령하였다.

제정-발령된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총 4개 센터로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그리고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3월 이 사업의 지정기준에 합당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공고-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였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기존의 5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외에 인하대병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며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재지정 혹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 평가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와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질환관리과에서 매년 구조적 평가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장평과와 함께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션 및 비전, 진료, 연구, 교육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서류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sup>2</sup>.

### 9) 현황, 문제점 및 제언

첫째,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과 진행 경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초기 사업 추진 시의 목적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가 지원되어야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심-뇌혈관센터 사업이나 권역외상센터 사업 등은 사업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나, 만성 호흡기 질환은 그 특성상 지표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중에서 우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에 대한 개선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권역에서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질환센터 사업의 홍보 강화로 지역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겠다.

넷째,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쇄성폐질환 연구원과 같은 유관 기관과 지역의 타 전문질환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할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사업수행비는 처음부터 각 병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사업수행 기간이 일단 종료된 2017년에도 각 병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 바람직하겠으나, 각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사업운영비는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3. 결론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사업은 지역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 연구, 교육과 공공보건의료를 지역에서 책임을 맡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정된 5개 센터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호흡기 질환의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의 초기 계획에 따른 수행의지, 해당 병원의 지원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or regional center for respiratory & rheumatoid and degenerative arthriti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2. Korean Center for Diseases Control. A study on regional respiratory & rheumatoid and degenerative arthritis center's oper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and development plan. Osong: Korean Center for Diseases Control; 2013.